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내부의 시각

〈배경〉 2012년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중국이 그동안 누려온 인구보너스를 상실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그러나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가진 이원화된 경제인 중국에서는 생산가능인구보다 비농업 취업자 추이가 더 중요하며, 비농업 취업자의 증가율이 높게 유지되는 한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둔화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소개함.

UBS, 宏觀要點, 勞動年齡人口減少意味着什么? 汪濤, 胡志鵬 (2013년 2월 5일)
人民日報, 人口紅利拐占己現 田後榮 (2013년 1월 28일)
國家統計局, 2012年國民經濟運行情況答記者問 (2013년 1월 18일)

1.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2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勞動年齡人口, 15~59세)의 감소가 나타났다고 발표함. 중국의 2012년 생산가능인구는 9억 3,727만 명으로 전년대비 345만 명 감소함(〈그림1〉 참조).
2. 국가통계국 마젠탕(馬建堂) 국장은 '2012년 국민경제 운행 상황'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수치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초래하는 장기적인 도전에 대해 경고하였는데, 이는 중국 당국에서 동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함. 마 국장은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3. 인민일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의 차이팡(蔡昉) 소장과 인터뷰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중국이 그동안 누려온 '인구보너스(人口紅利)'가 사라져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보도함. 중국은 그동안 생산가능인구가 늘면서(인구부양비가 하락) 경제성장이 빨라지는 인구보너스의 수혜를 받아왔으나, 2012년을 전환점으로 중국의 인구보너스가 소멸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임.
4. 차이팡 소장은 인구구조의 장기적 변화를 고려한 장기 거시경제정책의 운용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의 둔화추세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의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팽창정책을 지속하다가 버블경제가 형성되어 결국 1990년대 이후의 극단적 경기 둔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지적함.
 - 중국의 경우 제11차 5개년 기간(2010년까지) 동안 10.5% 성장했으나, 제12차 5개년 기간(2015년까지) 동안에는 7.19%, 제13차 5개년 기간(2020년까지) 동안에는 6.08% 수준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5. 이러한 우려에 대해 UBS의 왕타오(汪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보고서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반드시 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함. 선진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를 곧 노동력(총 취업자 수)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 농촌에 잉여 노동력이 존재하는 이원화된 경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것임.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는 총 취업자의 증가 속도보다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비농업부문으로 이전되는 속도가 더 중요함.
6. 지난 20년간 중국의 GDP 증가율을 살펴보면 총 취업자 증가율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비농업 취업자 증가율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그림 2〉 참조). 2000년대 총 취업자 증가율(연평균 0.6%)이 1990년대(1.1%)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농업 취업자 증가율이 3%대로 견조한 수준을 이어갔기 때문에 10%대의 성장이 가능했다고 분석함(〈표〉 참조).
- 비록 2012년부터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7,000만 명의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비농업부문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구보너스 상실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하락 충격은 크지 않다는 것임.

〈표〉 중국 노동력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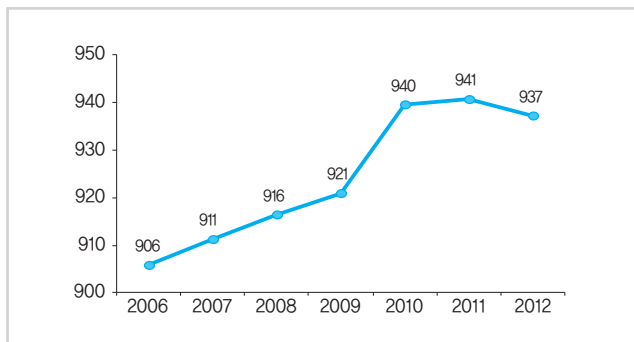
기간	생산가능인구	총 취업자	비농업 취업자	GDP
1991~2000년	1.5	1.1	3.4	10.4
2001~2010년	1.1	0.6	3.0	10.5
2012년	-0.4	0.4	3.4*	7.8

주 : UBS의 동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을 표로 정리함.*는 2011년 수치임.

7. 장기적으로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나, 인구보너스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어질 것임. 국가통계국 마젠탕 국장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취업 교육과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면 인구보너스의 종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향후 한자녀 정책의 완화도 불가피할 것임. **KIF**

〈그림 1〉 중국 15~59세 생산가능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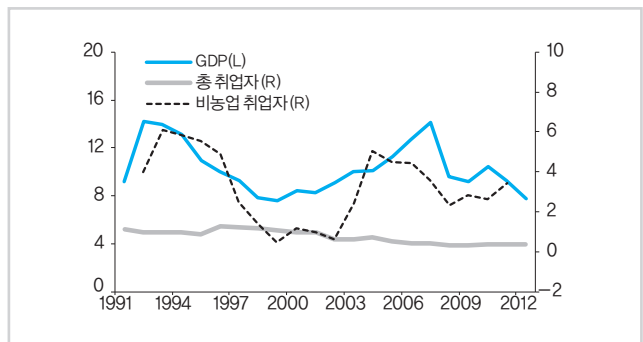
(단위 : 백만명)



자료 : CEIC

〈그림 2〉 GDP와 비농업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자료 : CEIC